

구리시 청소년운영위원회 '별하 카페, 수익금 전액 기부

청소년 주도 활동이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등록 2025.08.19 13:30:57



▲ 구리시 청소년운영위원회 '별하 카페' 수익금 전액 기부

(중부시사신문) 구리시에서는 지난 8월 18일 청소년문화의집이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별하카페' 운영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별하카페'는 구리시청소년재단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위원들이 기획 단계부터 메뉴 선정, 홍보, 판매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8월 6일부터 8월 9일 까지 운영한 카페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운영된 '별하카페'에는 약 380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방문해 총 43만 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번 활동을 주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별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참여 보장과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초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 후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별하는 2024년에 처음 발족한 이래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연담(장자중 2학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처음 해보는 카페 운영이라 걱정도 됐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음료를 드시고 응원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다."라며, "우리의 노력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청소년재단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 활동이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